

2016년 3월 9일

# 투자전략 Daily

• 글로벌전략

유가 50달러: Winner를 찾아라

• 이머징마켓 동향

차익실현 매물, 지표 부진에 주요 이머징 약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아진산업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F&F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화장품, 대우조선해양, KT, S&T모티브, 롯데제과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T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글로벌채권 | 김병걸 ☎ 3276-6174  
R E I T s | 이수정 ☎ 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3/2(수)	3/3(목)	3/4(금)	3/7(월)	3/8(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47.42	1,958.17	1,955.63	1,957.87	1,946.12	
	등락폭	30.76	10.75	-2.54	2.24	-11.75	
	등락종목	상승(상한)	572(0)	517(0)	484(1)	462(1)	391(0)
		하락(하한)	243(0)	292(0)	320(0)	358(0)	410(1)
	ADR	115.13	115.07	115.37	119.49	123.35	
	이격도	10 일	101.67	101.83	101.45	101.35	100.59
		20 일	102.31	102.75	102.53	102.51	101.75
	투자심리	60	7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23	421	316	345	354
	거래대금	(십억 원)	5,178	4,982	4,606	4,688	4,844
코스닥	코스닥지수	662.25	669.01	673.84	672.21	674.32	
	등락폭	10.63	6.76	4.83	-1.63	2.11	
	등락종목	상승(상한)	572(1)	517(3)	484(4)	462(1)	489(1)
		하락(하한)	243(1)	292(0)	320(0)	358(0)	563(0)
	ADR	105.16	104.93	108.10	110.17	113.71	
	이격도	10 일	102.64	102.96	103.14	102.46	102.40
		20 일	101.39	102.53	103.36	103.21	103.59
	투자심리	80	90	90	80	80	
	거래량	(백만 주)	518	543	532	546	546
	거래대금	(십억 원)	3,046	3,511	3,109	3,298	3,104

##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524.4	1,249.9	1,005.1	234.7	178.0	234.3	64.2	11.7	282.248	90.2
	매도	2,418.5	1,346.9	1,065.4	196.3	191.5	255.2	98.6	14.3	309.5	38.8
	순매수	105.9	-97.0	-60.3	38.4	-13.5	-20.9	-34.4	-2.6	-27.2	51.4
	3월 누계	-719.0	1,135.8	-642.2	85.8	114.3	-658.7	-148.8	-2.3	-32.4	225.4
	16년 누계	-1,417.3	-1,636.3	3,605.6	917.2	2,917.0	494.6	-436.0	-168.4	-118.8	-551.9
	코스닥	매수	2,786.9	183.8	138.2	55.1	16.6	30.0	9.2	2.1	25.3
매도		2,732.8	231.9	137.9	38.2	21.7	40.2	10.9	1.2	25.6	26.8
순매수		54.1	-48.1	0.3	16.9	-5.1	-10.3	-1.6	0.8	-0.4	-6.3
3월 누계		178.1	38.3	-134.2	34.0	-12.3	-106.4	-0.3	-0.5	-48.6	-82.1
16년 누계		1,660.3	-110.7	-1,253.1	-198.0	-45.9	-355.2	-153.1	-65.3	-435.6	-296.5

## 유가 50달러: Winner를 찾아라

2016년 Target KOSPI	2,250pt
12MF PER	10.75배
12MF PBR	0.92배
Yield Gap	7.8%P

- ▶ 유가 target 50달러
- ▶ 나비효과: 상품가격 반등과 EM 가치주
- ▶ ‘서바이버’ & ‘턴어라운드’ 종목, 글로벌 ETF 및 해외 에너지 관련 기업

### ■ 나비효과: 상품가격 반등과 EM 가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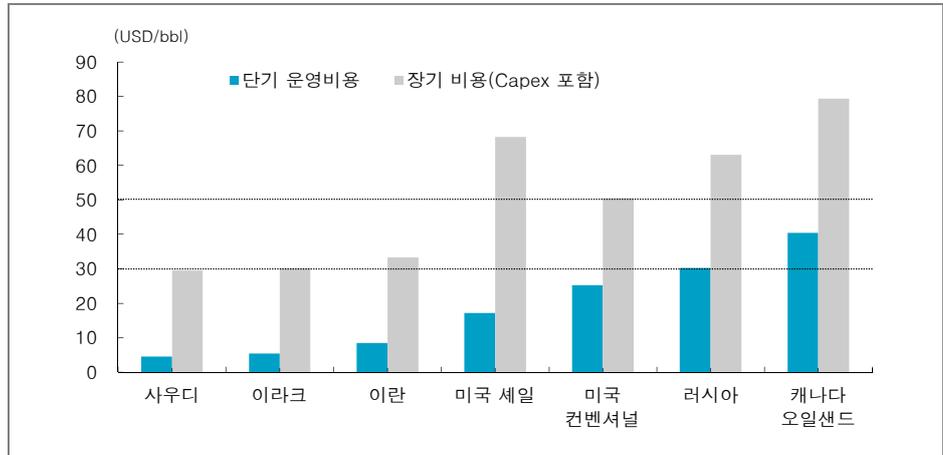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는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 나비이론이다. 어떠한 일이 시작될 때에는 아주 작은 양의 차이가 결과에 이르러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현재의 원유시장 환경이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고비용 구조의 생산자들이 퇴출되고 투자를 축소하는 가운데 유가의 하방 경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대상으로서 신흥국과 가치주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 유가 target 50달러: “Winner” 를 찾아라

올해 유가가 50달러 수준까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급락으로 미국 shale 오일 생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주요 석유사들의 투자 축소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 감소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Capex를 포함한 break-even 유가는 미국 등 Non-OPEC 국가의 경우 50\$ 수준이다. 유가가 이 수준에 안착하기 전까지 투자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본재(기계/상사/조선/건설), 에너지(정유), 소재(철강/화학)는 2014년 이후 유가 하락과 가장 상관성이 높았던 업종들이다. 해당 업종의 낙폭 과대 종목 중 ‘서바이버’와 ‘턴어라운드’ 조건을 충족하는 상위 종목을 스크리닝했다. 현대건설, 현대제철, 삼성정밀화학 등 14 종목으로 보유 현금이 풍부하고 배당 등 안전판이 확보된 종목이면서 매출과 이익 증가가 예상돼 유가 반등의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와 상관성이 높았던 글로벌 ETF 및 해외 에너지 관련 기업도 주요 투자 대상이다.

[그림 1] Short term, Long term 유가 break-even



자료: US Global Investors

<표 1> 국내 종목 스크리닝 결과

Code	종목명	업종	시가총액 (십억원)	KOSPI 대비 주가 등락률		조건					합계
				'14.06 ~'15.12	'16.02~	FCF	Net cash	배당	매출 증가	순익 증가	
A000720	현대건설	건설	4,554	-48%p	9%p	2	1	1	1	1	6
A000210	대림산업	건설	3,017	-18%p	9%p	0	1	2	2	1	6
A004020	현대제철	철강	7,566	-31%p	14%p	1	0	2	1	1	5
A034020	두산중공업	기계	2,022	-39%p	11%p	0	0	2	1	2	5
A004000	삼성정밀화학	화학	986	-11%p	-2%p	0	1	2	2	0	5
A078930	GS	석유와가스	5,073	14%p	5%p	0	0	2	1	1	4
A010140	삼성중공업	조선	2,655	-58%p	8%p	0	0	0	2	2	4
A012450	한화테크윈	기계	2,069	-31%p	18%p	0	0	2	1	1	4
A005490	POSCO	철강	18,614	-43%p	17%p	0	0	2	0	1	3
A096770	SK이노베이션	석유와가스	14,471	17%p	12%p	0	0	2	0	1	3
A047050	대우인터내셔널	무역회사와판매업체	2,272	-53%p	27%p	0	0	1	1	1	3
A064350	현대로템	기계	1,343	-42%p	28%p	0	0	0	2	1	3
A009540	현대중공업	조선	8,360	-48%p	17%p	0	0	0	0	2	2
A006360	GS건설	건설	1,910	-39%p	4%p	0	0	0	1	1	2
평균				-31%p	13%p						

주: 1. 업종 기준은 WICS Level 3 분류 기준

2. FCF = 영업이익 현금흐름 - Capex. Wisefn 값

3. Net Cash = 현금 및 현금등가물 + 단기금융상품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이자발생부채. 2015년 3Q 마감 기준 실제치

4. 배당수익률 계산은 2015년 결산배당 금액 기준. 3/31 마감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

5. 2016년 매출, 순이익은 당사 예상치 기준. 유니버스 종목 아닐 경우 컨센서스 이용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표 2〉 유가와 상관관계 컸던 Top 6 ETF 개요

Ticker	USO US Equity	GSG US Equity	XES US Equity	IGE US Equity	IEO US Equity	XLE US Equity
이름	UNITED STATES OIL FUND LP	ISHARES S&P GSCI COMMODITY Index	SPDR OIL & GAS EQUIP & SERVICE	ISHARES NORTH AMERICAN NAT	ISHARES U.S. OIL & GAS E&P	ENERGY SELECT SECTOR SPDR
개요	퍼센트 단위 변동이 WTI 가격 변동을 반영하도록 한 ETF	S&P GSCI 총수익 지수의 실적에 상응하도록 만들었으며 분산된 상품그룹에 투자	S&P 석유&가스장비&서비스 산업지수의 실적을 복제하는 ETF	S&P 북미 천연자원 섹터지수의 운용실적에 상응하는 투자성과를 추구	미국, 석유 가스 탐사, 생산과 유통에 중점을 두고 투자	미국 에너지 대형주를 편입하고 있으며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생산 기업과 굴착 기업에 투자
시가총액 (백만 달러)	3,916	691	182	1,026	343	12,621
일평균거래대금 (천 달러)	480,427	7,383	7,052	57,901	13,357	1,656,769
배당수익률 (12개월, %)	N/A	N/A	2.53	3.02	2.18	3.39
수수료 (%)	0.72	0.75	0.35	0.47	0.43	0.14
기초지수	WTI 최근월 선물	S&P GSCI Total Return CME Index	S&P Oil & Gas Equipment Select Industry Index	S&P North American Natural Resources Sector Index	DJ US Select Oil E&P Index	Energy Select Sector Index
지수개요	N/A	주요 상품 가격을 지수화 한 것으로 각 commodity의 비중은 세계 생산량 기준으로 가중하여 계산	S&P 석유&가스장비&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종목들로 구성	S&P 북미 천연자원 섹터지수는 천연자원과 관련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 철강 업종에 속하는 종목은 제외	석유 및 가스 탐사, 생산, 정제, 유통 등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구성	S&P500에 포함된 종목 중 Energy sector에 해당하는 종목들로 구성
자산군	Commodity	Commodity	Equity	Equity	Equity	Equity
구성방식	N/A	N/A	동일가중	시가총액 가중	시가총액 가중	시가총액 가중
시총 사이즈	N/A	N/A	시장 전반	대형주	대형주	대형주
지리적 집중국가	N/A	N/A	U.S.	U.S.	U.S.	U.S.
주요 보유종목	WTI 근월물	N/A	RPC, 헬머리치&페인	엑슨 모빌, 세브론 등	코노코필립스, 필립스 66 등	엑슨 모빌, 세브론 등
보유종목 수	32	12	41	131	65	43
산업비중	N/A	N/A	석유/가스 서비스 63% 석유/가스 28% 운송관련 6% 광업 3%	석유/가스 58% 석유/가스 서비스 15% 광업 9% 송유관 8%	석유/가스 97% 석유/가스 서비스 1% 소매 1%	석유/가스 75% 석유/가스 서비스 17% 송유관 8%
레버리지 여부	No	No	No	No	No	No

주: 일평균거래대금은 최근 3개월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3〉 해외 종목 스크리닝 결과

Code	종목명	업종	시가총액 (USD mn)	S&P500 대비 주가 등락률		조건					합계
				'14.06 ~'15.12	'16.02~	FCF	Net cash	배당	매출 증가	순익 증가	
INT	월드 퓨얼 서비스	Transportation Services	3,430	-27%p	22%p	2	2	2	0	1	7
SLB	슬럼버거	Oil Equipment & Services	92,827	-46%p	1%p	2	2	2	0	0	6
HAL	할리버튼	Oil Equipment & Services	29,484	-57%p	5%p	2	2	2	0	0	6
BHI	베이커 휴즈	Oil Equipment & Services	20,286	-44%p	4%p	2	2	2	0	0	6
NOV	내셔널 오일웰 바르코	Oil Equipment & Services	12,074	-64%p	-5%p	2	2	2	0	0	6
CCO	카메코	Nonferrous Metals	5,011	-25%p	-3%p	2	0	2	1	1	6
HP	헬머리치 & 페인	Oil Equipment & Services	6,423	-60%p	13%p	2	2	2	0	0	6
SON	소노코 프로덕트	Containers & Packaging	4,546	-10%p	11%p	2	0	2	1	1	6
RGLD	로알 골드	Gold Mining	3,328	-58%p	63%p	0	2	2	2	0	6
FI	프랑크스 인터내셔널	Oil Equipment & Services	3,141	-40%p	0%p	2	2	2	0	0	6
THO	타호 리소시스	General Mining	2,245	-63%p	14%p	0	2	2	2	0	6
OII	오션리어링 인터내셔널	Oil Equipment & Services	2,927	-57%p	-16%p	2	2	2	0	0	6
CVI	CVR 에너지	Exploration & Production	2,083	-22%p	-33%p	2	2	2	0	0	6
KS	캡스톤 페이퍼 & 패키징	Paper	1,088	-36%p	-30%p	2	0	2	2	0	6
KMI	킨더 모건	Pipelines	42,344	-65%p	12%p	2	0	2	1	0	5
K	킨로스 골드	Gold Mining	3,902	-48%p	74%p	2	2	0	1	0	5
EXP	이글 머티리얼스	Building Materials & Fixtures	3,086	-42%p	15%p	2	0	2	1	0	5
UFS	돔타	Paper	2,250	-18%p	8%p	2	0	2	1	0	5
DK	델렉 유에스 홀딩스	Exploration & Production	996	-19%p	-7%p	2	0	2	0	1	5
MTRX	매트릭스 서비스	Oil Equipment & Services	506	-42%p	-5%p	2	2	0	1	0	5
OXY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Exploration & Production	53,263	-37%p	0%p	0	2	2	0	0	4
TRP	트랜스캐나다	Pipelines	25,912	-16%p	-1%p	0	0	2	1	1	4
SE	스펙트라 에너지	Pipelines	20,158	-49%p	7%p	0	0	2	1	1	4
IP	인터내셔널 페이퍼	Paper	15,797	-28%p	9%p	2	0	2	0	0	4
CVE	세노버스 에너지	Exploration & Production	10,251	-55%p	-8%p	0	2	2	0	0	4
WMB	윌리엄스 컴퍼니즈	Pipelines	14,356	-63%p	-9%p	0	0	2	1	1	4
CAM	카메론 인터내셔널	Oil Equipment & Services	12,870	-12%p	1%p	2	2	0	0	0	4
AA	알코아	Aluminum	12,774	-38%p	27%p	2	0	2	0	0	4
AEM	애그니코 이글 마인스	Gold Mining	7,879	-16%p	9%p	2	0	2	0	0	4
EQT	EQT	Exploration & Production	9,425	-57%p	-6%p	0	2	2	0	0	4
XEC	시마렉스 에너지	Exploration & Production	8,214	-43%p	-8%p	0	2	2	0	0	4
HFC	홀리프런티어	Exploration & Production	6,176	-14%p	-1%p	2	0	2	0	0	4
FTI	FMC 테크놀로지	Oil Equipment & Services	5,945	-58%p	2%p	2	2	0	0	0	4
OKE	원오케이	Gas Distribution	5,659	-71%p	4%p	0	0	2	2	0	4
PKG	패키징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Containers & Packaging	4,943	-16%p	0%p	2	0	2	0	0	4
CLB	코어 래보라토리스 NV	Oil Equipment & Services	4,772	-41%p	13%p	2	0	2	0	0	4
PE	파슬리 에너지	Exploration & Production	3,137	-32%p	-7%p	0	2	0	2	0	4
ESV	엔스코	Oil Equipment & Services	2,637	-78%p	9%p	2	0	2	0	0	4
OI	오언스-일리노이	Containers & Packaging	2,486	-55%p	15%p	2	0	0	1	1	4
DRQ	드릴 퀵	Oil Equipment & Services	2,157	-51%p	-6%p	2	2	0	0	0	4
GEF	그라이프	Containers & Packaging	1,495	-47%p	1%p	2	0	2	0	0	4
SEMG	셈그룹	Pipelines	940	-70%p	-7%p	0	0	2	2	0	4
CKH	시코 홀딩스	Oil Equipment & Services	886	-41%p	8%p	0	2	0	0	2	4
XOM	엑슨 모빌	Integrated Oil & Gas	340,111	-28%p	3%p	1	0	2	0	0	3
WNR	웨스턴 리파이닝	Exploration & Production	2,563	-12%p	-15%p	0	0	2	1	0	3
OIS	오일 스테이트 인터내셔널	Oil Equipment & Services	1,490	-63%p	-1%p	2	1	0	0	0	3
평균				-43%p	5%p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4> 미국 상장 주요 원유 long ETF

Ticker Name	시가총액 (백만 달러)	3개월 평균 거래대금 (백만 달러)	수수료 (%)	레버리지 비율 (x)
USO UNITED STATES OIL FUND LP	3,364	445	0.72	1
OIL IPATH S&P GSCI CRUDE OIL TR	649	29	0.75	1
UCO PROSHARES ULTRA BLOOMBERG CR	647	123	0.95	2
DBO POWERSHARES DB OIL FUND	410	9	0.79	1
BNO UNITED STATES BRENT OIL FUND	91	3	0.9	1
USL UNITED STATES 12 MONTH OIL	78	2	0.93	1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상기 보고서는 2016년 3월 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9일자로 발간된 <Global Strategic Insight: 유가 50달러: Winner를 찾아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차익실현 매물, 지표 부진에 주요 이머징 약세

- ▶ 상해종합지수 0.1% 상승, 지표 부진으로 급락하던 증시는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강세 마감
- ▶ 홍콩H지수 1.4% 하락, 무역지표 부진과 차익실현 매물에 약세 전환
- ▶ 자카르타종합지수 0.4% 하락, 루피아화 약세 전환과 무역지표 부진 우려에 약세 지속
- ▶ VN지수 0.3% 하락, 최근 지수 상승 선도주에 차익실현 매물 출회하며 약세 전환

상해종합지수는 0.1% 상승, 철강, 비철금속, 장신구, 귀금속 등의 업종 강세

###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0.1% 상승한 2,901p로 마감하며 2900선을 회복했다. 약세로 출발한 증시는 오전에 하락폭이 3.3%까지 확대됐으나, 오후 들어 저가매수세가 유입돼 결국 상승 마감했다. 거래대금은 2,205억위안으로 직전일보다 소폭 늘었다. 당일 발표한 수출 규모가 컨센서스와 직전치를 크게 하회하며 경기둔화 우려감이 확대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또한 증감회에서 주식등록제를 연구 중에 있으며 전략신흥권이 빠른 시일 내에 출범할 것이라고 전하자 자본유출 우려가 확대돼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다만 오후 들어서 무역지표의 부진에 따른 하락폭이 과다했다는 인식 확대와 정부와 인민은행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돼 저가매수세가 유입됐다. 장 마감직전 약세를 보이던 은행과 에너지 업종에 매수세가 대폭 유입돼 상승 전환했고, 그외에도 종이, 항구/해운, 계량기, 유리, 목재, 소프트웨어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차스닥은 오전 중에 4% 넘게 급락했으나 오후 들어 저가매수세가 대폭 유입돼 2.5% 상승한 2,002p로 마감했다. 한편 외국인들은 후구통을 통해 3.5억위안 순매도했다.

홍콩H지수 1.4% 하락,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등의 업종 약세

###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1.4% 하락한 8,505p로 마감하며 6거래일만에 약세 전환했다. 약세 출발한 증시는 장중 본토 증시의 급락에 동조하며 하락폭이 확대됐으나 마감직전 저가매수세가 유입돼 하락폭이 축소됐다. 무역지표가 컨센서스 보다 부진하게 발표되자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했다. 다만 인민은행에서 4거래일째 위안화 공시환율을 낮춘 것과 정책기대감이 부각된 것이 지수의 하락폭을 제한했다.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통신서비스, 에너지 등의 소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동반 하락했다. 한편 본토투자자들은 강구통을 통해 6억위안 순매수했다.

자카르타종합지수 0.4% 하락, 소비재, 금융, IT, 통신서비스 등 업종 약세

###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4% 하락한 4,811p로 마감했다. 약세로 출발한 증시는 점차 하락폭이 확대됐다. 루피아화의 약세 전환과 무역지표가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다만 마감직전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돼 지수의 하락폭을 제한했다. 업종별로는 소비재, 금융, IT, 통신서비스 등이 하락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0.3% 하락,  
보험, 은행, 가스 등의 업종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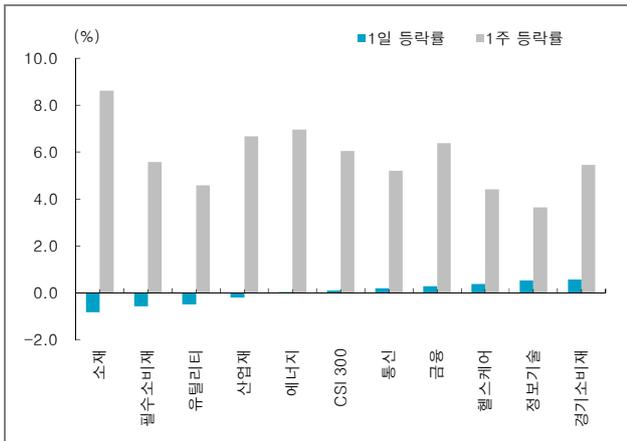
VN지수는 전강후약의 흐름을 보인 끝에 0.3% 하락한 575p로 마감했다. 동/달러 환율 하락, 해외상장 ETF의 정기 리밸런싱 진행 등이 호재로 작용했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대형주에 집중됐다. 그러나 그 동안 지수 상승을 이끈 일부 선도주에 대한 차익실현 부담 확산, 어닝시즌 종료에 따른 실적 기대 약화 등이 악재였다. BVH, VCB, GAS 등 보험, 은행, 가스 등 관련주가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해관총서, 2월 수입(달러기준) YoY 13.8% 감소(컨센서스 -12.0%, 1월 -18.8%) 해관총서, 2월 수출(달러기준) YoY 25.4% 감소(컨센서스 -14.5%, 1월 -11.2%) 해관총서, 2월 무역수지 325.9억달러 (컨센서스 510.0억달러, 1월 632.9억달러)
베트남	통계국, 2월 자동차 판매량 YoY 16.3% (직전치 36.5%)
브라질	통계국, 3월 첫째 주 주간 무역수지 12.4억달러 흑자(직전치 2억달러 흑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2월 외환보유고 1,045.4억달러 (직전치 1,021.3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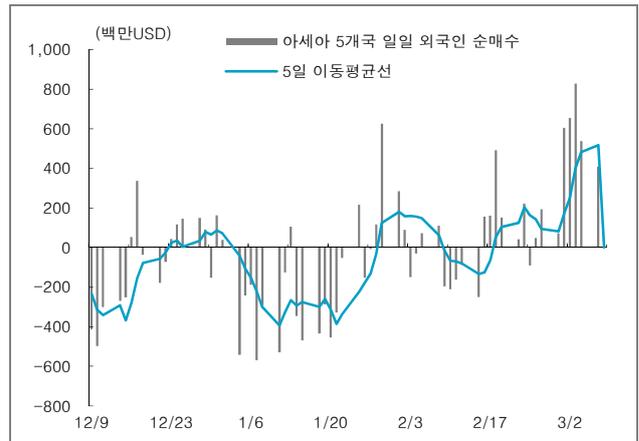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3/8(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901.39	0.14	6.15	4.99	-18.02
홍콩 H	8,505.22	-1.40	5.42	5.59	-11.96
중국 차스닥	2,002.19	2.50	3.48	-4.52	-26.23
인도 SENSEX	24,519.34	-0.52	6.60	-0.40	-6.12
인도네시아 JCI	4,811.04	-0.42	0.65	0.25	4.75
태국 SET	1,382.07	-0.98	2.61	5.70	7.30
베트남 VN	574.71	-0.26	2.34	5.50	-0.75
MSCI 이머징마켓	795.18	0.53	5.61	8.32	0.13

주: 8일 오후 6시 5분 기준

## 시장 동향과 특징주

###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감 속 외국인 매도세로 혼조 마감

- 미국증시는 국제유가 상승과 주요 광물 가격 급등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주요 기술주인 페이스북과 알파벳 등이 하락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 코스피는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순매도세로 돌아선 가운데 기관 매도세가 더해지며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며 1,950P선 아래로 밀려남.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금융투자 등 일부 기관 매수세로 장 후반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주식 액면분할 효과와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롯데제과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지카바이 러스 백신 개발의 선두업체인 미국 관계사 이노비오에 대한 지분 경쟁이 치열하다는 소식에 진원생명과학이 초강세를 보임. 하이트진로 에탄올 인수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창해에탄올이 강세를 보였으며,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AMI구축 사업 재개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인스코비가 신고가를 경신. 또한, 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면세점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며 인터넷 보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반면, 지난해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각각 5조원대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적자전환한 대우조선해양이 급락했으며, 골프장 개발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한라홀딩스가 15% 이상 급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b>롯데제과(004990)</b> <b>▶2,565,000(+5.77%)</b>	<b>지배구조 개편으로 영업 및 자산가치 부각 전망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동사가 식품사업을 총괄하는 중간 지주사가 되고, 신동빈 회장 및 특수 관계자 보유 지분이 호텔롯데 혹은 상위 지주사로 현물 출자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의 잠재된 영업 및 자산가치가 한층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li> <li>- 아울러, 주주친화 정책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거래 활성화로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액면분할 결정으로 유동성 할인이 10% 제거됐다는 분석도 긍정적으로 작용</li> </ul>
<b>면세점 관련주</b>	<b>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검토 소식에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현재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강세</li> <li>-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11000, +16.16%), 호텔신라우(008775, +9.76%), 신세계(004170, +7.96%), 호텔신라(008770, +3.47%), 롯데쇼핑(023530, +1.50%) 등 강세</li> </ul>
<b>인터넷 보안주</b>	<b>북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며 강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철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사이버테러 우려에 강세</li> <li>- 파수닷컴(150900, 상한가), 이니텍(053350, +9.89%), 이스트소프트(047560, +7.66%), 시큐브(131090, +6.96%), SGA(049470, +5.73%) 등 강세</li> </ul>

##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b>휴젤(145020)</b> <b>▶264,200(+3.49%)</b>	- 주력제품인 보툴렉스와 더채움필러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b>인스코비(006490)</b> <b>▶2,200(+11.11%)</b>	- 정부가 5,500억대 스마트그리드 원격검침인프라(AMI) 구축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 수주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b>송원산업(004430)</b> <b>▶16,800(+0.00%)</b>	- 생산량 증가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장중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유망종목: 아진산업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아진산업 (013310)	7,740 (-4.4)	8,100 (0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12월 현대기아차 개폐 구조물(moving parts) 신규 수주로 16년 700억원의 추가 매출 발생 예상</li> <li>- 설비증설 효과 본격화와 평균판가 상승에 따른 마진 개선을 감안할 때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li> <li>- 개폐 구조물 신규 수주, 중국 설비증설, 차체 경량화, 부품 라인업 다각화 등을 통해 성장 잠재력 강화 전망</li> </ul>
브리지텍 (064480)	6,240 (+6.7)	5,850 (0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개 시중은행 중 14개를 고객사로 확보(MS 73.6%), 제1금융권 콜센터 사업영역에서 독보적 점유율 보유한 가운데 제2금융권(카드, 증권, 보험 등)으로의 매출 성장 지속 전망</li> <li>- 고객상담의 품질 향상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음성인식엔진 내재화로 경쟁력 강화 예상</li> </ul>
선창산업 (002820)	12,450 (+7.3)	11,600 (0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저가 합판제품에 대한 덤핑 관세 부과, 작년 사상최대 분양물량에 따른 착공 및 입주물량 증가세 본격화, 고부가가치 제품위주의 제품믹스 개선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 정상화 예상</li> <li>- 국내 생활용품 펌프 분야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다린' 인수, MKTI(Myanmar Korea Timber International) 인수를 통한 미얀마 시장 진출 등 사업 다각화로 장기 성장 기반 강화</li> </ul>
MDSE테크 (086960)	21,700 (+5.1)	20,650 (0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No.1 소프트웨어 개발/솔루션의 풀-라인업 판권을 보유한 업체로 다양한 산업들과 IT와의 융합화에 따른 임베디스 소프트웨어 시장의 구조적 성장 예상</li> <li>- 스마트카 시장 개화, 현대/기아차의 전장화 의지, 국방/항공 부문 SW의 국산화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li> </ul>
SJM (123700)	7,180 (+18.3)	6,070 (0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엔진과 차체의 진동 및 소음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인 벨로즈 생산업체로 세계 시장점유율 2위 업체</li> <li>- 포드, 현대/기아차, GM, 닛산 등 다양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높은 영업이익률 유지</li> <li>- 신형시장을 중심으로 벨로즈 탑재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전망</li> </ul>
KT서브마린 (060370)	5,430 (-4.2)	5,670 (0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10월 신규 특수 선박인 '리스폰더호' 양수. 이는 1995년 설립 이후 이루어진 첫 대규모 투자</li> <li>- 국내 독점 해양케이블 공사업체로 데이터 트래픽의 구조적 증가에 따른 해저케이블 시장의 BIG 투자 사이클 도래로 구조적 수혜 예상</li> <li>- 지연됐던 프로젝트들 재개와 함께 올해 신규 수주와 매출이 동시에 확대될 전망</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중장기 유망종목: F&F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F&F (007700)	14,950 (+6.8)	14,000 (02/11)	439	31	23	1,487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성장세 지속중인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는 신규 출점과 아이템 확장 등으로 매출 성장 지속 예상</li> <li>- 작년 메르스로 인한 매출 감소 영향이 컸던 MLB의 매출 회복 및 한국인 메이저리거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li> <li>- 디스커버리와 MLB브랜드 매출 확대에 수익성 개선 지속 예상</li> </ul>				
삼성전자 (005930)	1,192,000 (-5.4)	1,260,000 (12/30)	204,975	27,248	20,882	145,233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경기 불안과 IT 수요 부진으로 2016년 1분기까지 실적 개선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핵심 경쟁력과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투자매력 제고 가능성 상존</li> <li>- 지배구조 개선 기대와 배당금액 증가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정책에 따른 재평가 가능성</li> </ul>				
현대모비스 (012330)	250,000 (+1.4)	246,500 (12/30)	40,961	3,328	3,812	39,892	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에는 핵심부품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수익성을 견인할 전망.</li> <li>- 현대차그룹의 핵심부품 내재화와 친환경 부품 확대에 따른 구조적 수혜 예상</li> <li>- AS부문의 고수익성과 안정성과 기술력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li> </ul>				
더존비즈온 (012510)	22,000 (+7.3)	20,500 (12/30)	166	39	31	1,057	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1만 중소/중견 기업과 9천여 개의 세무회계사무소를 핵심 고객으로 확보</li> <li>-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으로 클라우드 사업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서 어닝 모멘텀 본격화 예상</li> <li>- 클라우드 유지 보수액은 기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대비 3배 이상 높아 향후 외형 성장을 견인할 전망</li> </ul>				
삼영무역 (002810)	23,300 (-3.5)	24,150 (12/30)	231	4	27	1,703	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계 근시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계열사인 케미그라스가 4개의 생산라인을 통해 연간 6천만장의 렌즈 생산능력을 보유</li> <li>- 베트남 생산공장(Chemilens Vietnam)은 2016년부터 글로벌 1위 안경렌즈 업체인 프랑스 에실로의 아시아 시장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 지속적인 R&amp;D와 신제품 출시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시장 점유율 확대 추세 지속 예상</li> </ul>				
롯데칠성 (005300)	2,095,000 (-5.6)	2,219,000 (12/30)	2,407	177	118	86,667	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시장의 저도화와 다양화 추세를 주도하며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시장 점유율 확대 예상. 맥주(Kloud)사업 성장과 향후 계열사 지분 및 서초동 부지 가치 현실화에 대한 기대 유효</li> <li>- 음류와 주류시장의 성장과 주요 제품의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li> </ul>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현대모비스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화장품: 이슈점검: 면세점, 수출 둔화, 중국 정부 규제 강화

### ■ 면세점과 중국 현지 사업을 둘러싼 이슈 점검, 업종 내 옥석 가리기 진행 중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면세점과 중국 현지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려의 상당 부분은 업체별로 차별화될 것이고 대형 브랜드 업체들의 경우 해당 이슈들에 대한 매출 비중과 전략을 고려 시 영향은 크지 않다. 중국 소비 둔화 영향 및 사드로 인한 정정 불안 등 시간이 필요한 관전 포인트는 남아 있으나 화장품 업종 12MF PER은 38배를 고점으로 27배로 하락, 우려를 기반영한다고 판단된다. 화장품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최근 5년 평균 24배, 해외 사업이 가시화된 2014년부터 최근 2년 평균은 28배다. 글로벌 주요 7개사 2016년, 2017년 PER이 28배, 25배에 달해 우리 나라 화장품 업종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1분기 조정을 점진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화장품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 1. 면세점: 불법 유통, 중국 현지 면세점 설립, 인바운드 관광객 둔화 우려

면세점 우려는 최근 보도된 면세점 불법 유통 이슈, 중국 현지 면세점 설립 및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 수요 둔화 우려로 요약된다. 이중 면세점 불법 유통 이슈는 대형사들의 경우 전체 매출의 1~2% 수준으로 추정되고, 중국 현지 면세점 강화는 부정적 요인이 아니다. 해외 여행 수요 둔화 우려는 중국 소비 둔화와 위안화 약세로 인해 연내 지속될 수 있으나 중국인들의 구조적 해외 여행 수요 확대와 한국 관광이 아시아 쇼핑 대상 국가들 내에서는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원화 약세를 감안 시 단정하기는 어렵다.

#### 2. 화장품 수출 둔화: 정식 채널과 현지 생산 중요성, 업체별 차별화 전망

최근 또다른 우려는 중국 현지 사업이다. 최근 화장품 전체 수출 증가세 둔화는 중국 현지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주시할 것은, 1) 중국 수입 시장 내 대한민국 화장품 수입증가율은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으며, 2) 현지 생산 및 유통을 확보한 업체의 경우 전체 수출 동향과 무관하다.

#### 3. 중국 정부 규제: 해외 온라인 역직구 행우세 폐지, 수입 화장품 규제 강화

중국 정부의 화장품 관련 규제 이슈는 1) 해외 온라인 역직구에 대한 과세 체제 변경과 2) 수입 화장품 위생 허가 강화다. 관련하여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해외 역직구 비중이 1% 미만이고, 과세 변경은 증가 이상 업체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이다. 수입 화장품 위생 허가 강화는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2015년부터 대형 업체들의 경우 준비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수입 화장품에 모두 적용, 중국의 중고가 화장품 시장은 수입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어 경쟁 구도의 변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 ■ 2015년 Review: 한국 화장품 아시아 사업 경쟁력 독보적

2015년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의 성과는 대부분 아시아, 특히 중국 사업에서 차별화되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모두 중국 사업에서 60%대 성장을 시현, 독보적이었다. 아시아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적합한 제품군, 중고가부터 저가를 아우르는 다양한 브랜드 라인업, 현지 생산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 기인한다. 중국 로컬 업체들과 글로벌 화장품 업체 사이에서 경쟁 우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3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대우조선해양(042660)

**비중축소(유지)**

종가(3/7): 6,040원

## 기대감보다 자본확충과 현안 정리가 우선

### ■ What's new : 다시 1조원에 가까운 영업적자

4분기 영업손실은 9,733억원으로 시장의 예상을 또다시 크게 하회했다. Songa semi-rig 830억원, 드릴쉽 1,290억원, FPSO 3,800억원 Fixed platform 2,200억원 등 해양 매출손실 8,750억원이 반영되었다. 시추선은 LD(지체보상금)과 legal risk를 반영했고 생산설비는 원가 증가요인에 의한 것이다. 해양 손실은 2분기 2.45조원, 3분기 7,650억원으로 4분기에도 개선은 없었다. 상선에서 580억원, 특수선에서 500억원의 충당금 환입효과가 있었다. 특수선의 환입은 일시적이지만 상선은 향후 환입 지속 가능성이 있다.

### ■ Positives : Offshore 프로젝트의 절반은 2016년 인도

인도기준 해양잔고 190억달러 중 2016년 상반기 23%, 하반기 20%, 2017년 상반기 17%, 하반기 6%의 프로젝트가 인도된다. 매출기준 해양 수주잔고는 2015년 65%에서 2016년 38%로 하락해 해양 리스크도 2016년을 peak로 점차 감소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주요 해양 프로젝트는 [표4]와 같이 대부분 2016년 delivery 혹은 sail-away 예정이다. 올해 상선 매출비중은 50%, 특수선은 12%로 추정된다. 특히 LNG선은 2015년 매출비중 12%에서 올해 30% 이상으로 증가하며 전사 손익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다.

### ■ Negatives : 1조원의 추가 증가 가정해도 부채비율 1,200%대

2015년 12월, 제3차 배정으로 4,142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작년 10월, 산업은행은 유상증자와 출자전환 등을 통해 4.2조원의 유동성 지원계획을 밝힌 뒤 이뤄진 순차적인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이다. 2015년 말 자본총계(비지배 지분 제외)/자본금 비율은 54.1%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이며, 부채비율은 4,178%로 1조원의 추가 증가를 가정해도 예상 부채비율은 1,265%에 달한다. 매입채무/파생상품 비중이 높은 조선업종 특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높은 비율임은 분명하다. 연결 순차입금은 7.9조원으로 3분기 대비 4천억원 감소했으나 상반기 해양 매출 peak로 유동성이 편만한 상황이 아니다.

### ■ 결론 : Risk on 시장 상황보다, 기업의 회생 여부가 중요

최근 유가 상승과 시장의 risk 완화 분위기를 반영, 조선업종의 강한 반등이 있었다. 그러나 시장 상황보다 기업의 회생 여부가 중요하다. 올 상반기 시추선 11척(드릴쉽 9척) 인도 예정인데 이에 대한 협상과 상반기 해양생산설비의 원활한 마무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이란 재진출이나 신규수주는 현안 정리 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작년 대비 직영/외주 직원은 10~15% 줄어들었고 자산매각과 비용절감 등, 회생을 위해 최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채권단의 추가 유동성 지원계획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비중축소 의견을 유지한다.

	4Q15P				증감률		2016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3,669	3,745	2.1	3,542	18.7	(17.5)	13,240	13,476
영업이익	(409)	(973)	NM	(95)	NM	NM	(337)	117
영업이익률(%)	(11.1)	(26.0)	-14.8	-2.7	12.6	-29.0	(2.5)	0.9
세전이익	(580)	(1,007)	NM	(145)	NM	NM	(767)	(96)
순이익	(404)	(971)	NM	(83)	NM	NM	(767)	(80)

\*상기 보고서는 2016년 3월 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KT(030200)

<b>매수(유지)</b>
목표가: 38,700원(유지)
종가(3/7): 28,500원

## 경쟁력 회복, 비용 절감으로 수익 호전

### ■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IPTV 등 핵심 사업 성장성 회복

통신, 미디어 등 핵심 사업의 성장성이 회복되고 있다. 이동통신은 자사 가입자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2016년 가입자 당 매출액(ARPU) 증가율이 2.1%로 이통 3사 중 가장 높을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2016년 ARPU가 2.4% 늘어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16년에 요금이 비싼 기가인터넷 가입자가 97% 늘어나기 때문이다. IPTV는 가입자와 ARPU가 각각 8.3%, 8.8% 늘어 흑자 전환할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IPTV 매출이 증가해 유선전화 매출 감소를 만회할 전망이다. 유선서비스 매출도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이다.

### ■ 2016년 순이익은 구조적 비용 감소로 전년 대비 24.7% 증가 예상

수익은 2015년에 비용구조 개선으로 턴어라운드해 2012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2016년에는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마케팅비용과 감가상각비가 경쟁완화와 설비투자 감소로 하향 추세가 지속돼 2016년에는 각각 3.6%,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 클린화, 부실 반영 등으로 일회성 영업외비용은 2015년 5,721억원에서 2016년 2,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다. 2016년 조정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 늘어나고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 감소로 24.7% 증가할 전망이다.

### ■ 주가 저평가, 배당 증가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38,700원(목표 PER 13.7배)을 유지한다. Valuation이 시장 및 통신업종대비 저평가됐다. 부동산 시가 기준 PBR은 0.4배로 낮다. 배당은 2015년 500원에서 2016년에 730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23,811	839	(162)	(666)	NM	4,460	NM	3.9	0.6	(1.4)	2.5
2014A	23,422	(292)	(1,055)	(4,316)	NM	3,563	NM	5.4	0.7	(9.5)	-
2015F	22,319	1,293	553	2,258	NM	4,631	12.5	3.1	0.6	5.2	1.8
2016F	22,718	1,311	689	2,816	24.7	4,610	10.1	3.0	0.6	6.3	2.6
2017F	22,890	1,409	805	3,287	16.7	4,689	8.7	2.9	0.6	6.9	2.8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3월 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S&T모티브(064960)

<b>매수(유지)</b>
목표가: 100,000원(유지)
종가(3/7): 70,200원

## 1Q16 Preview: 충분히 쉬었다

### ■ 다시 찾아온 매수 기회

S&T모티브의 주가가 다시 매력적인 구간으로 진입했다. 주가는 2015년 12월 23일 88,500원을 기록한 뒤 현재까지 21% 조정을 받았다. 이는 2년 간 350%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 현대차 친환경차 전용모델(아이오닉) 판매부진, 그리고 전기차 테마주 조정이 맞물려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 실적과 장기 성장성에 변함이 없어 이번 조정은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 중소형부품주 최선호주를 유지한다.

### ■ 이익 성장 지속된다

1분기 실적이 모터부문 호조와 원/달러 상승 효과에 힘입어 영업이익 317억원을 기록하며(OPM 9.8%)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특히 모터부문에서 DCT와 친환경차 모터 매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4분기 계절성으로 다소 주춤했던 북미향 모터매출(4륜 구동용 Electric Shift Motor 등)도 회복될 전망이다. 한편 4분기에 전분기말 대비 하락하며 순이익에 부담을 줬던 원/달러 환율도 1분기에는 전분기/전년동기 대비 모두 상승하면서 순이익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도 각 부문별 성장동력에 힘입어(2015/11/23 '사업부별 성장동력 정리' 참조) 16/17/18년 EPS가 각각 17.8/12.5/12.8% 증가할 전망이다.

### ■ 주체할 수 없이 쌓이는 현금

곳간에 돈이 쌓이고 있다. 2018년까지 3년간 잉여현금흐름(FCF)이 총 2,056억원에 달한다. 배당증가를 감안하더라도 2018년 현금은 3,451억원으로 증가해(2015년 1,415억원) 매출액 대비 현금비중이 19%에 달할 전망이다(2015년 11.7%). 이는 안정적인 EBITDA 창출(연평균 1,840억원), 제한적인 설비투자(연간 300~400억원), 그리고 무차입 경영(차입금비율 0%) 덕분이다. 회사는 2014년 11월 CEO 주관 IR에서 당분간 현금보유를 계속 늘려나갈 것임을 밝힌바 있다. 풍부한 현금은 향후 R&D 재원 및 ROE 향상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사용돼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전망이다.

### ■ Valuation

S&T모티브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00,000원을 유지한다(12MF EPS에 목표 PER 14배 적용).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1,099	69	61	4,371	78.7	92	9.6	6.7	1.1	11.2	1.9
2015A	1,211	123	86	6,034	38.0	149	14.2	8.1	1.9	13.8	1.2
2016F	1,410	140	104	7,106	17.8	166	9.9	5.8	1.4	14.8	1.7
2017F	1,601	156	116	7,996	12.5	183	8.8	5.0	1.2	14.7	2.0
2018F	1,816	185	131	9,018	12.8	203	7.8	4.0	1.1	14.8	2.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3월 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롯데제과(004990)

**매수(유지)**

목표가: 2,900,000원(상향)

종가(3/7): 2,425,000원

### 아버지와 다른 아들

#### ■ 수익 상황과 액면분할 효과 반영해 목표주가 2,900,000원으로 상향

SOTP로 산출한 목표주가를 기존 2,500,000원에서 2,900,000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첫째, 영업가치를 상향했기 때문이다. 저수익 제품을 축소하는 국내의 구조조정 효과를 반영하고, 파키스탄/카자흐스탄의 성장과 중국 법인의 손실 축소를 감안해 이익 전망치를 높인다. 또한 저금리 효과와 롯데그룹이 신동빈회장체제의 원리더 구조로 변할 경우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의 제과업에서 큰 시너지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변동성 위험을 하향했다. 둘째, 전일 발표된 1주당가액을 1/10으로 줄이는 액면분할의 효과를 반영해 종전에 적용하던 유동성할인 10%를 제거했다. 우리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동사는 식품사업을 총괄하는 중간 지주사가 되고, 결국 신동빈회장 및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이 호텔롯데 혹은 상위 지주사로 현물 출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롯데제과의 잠재된 영업 및 자산가치는 한층 부각되고 주가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 국내는 SKU 축소와 가격 인상, 해외는 이익 기여 본격화

2016년과 2017년 영업이익을 기존대비 각각 11.7%, 15.5% 상향한다. 우선 국내 제과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익성 위주 경영이 지속될 전망이다. 회사는 지난해부터 SKU를 전년대비 10% 가량 줄이며(현재 800여개로 추정) 수익성을 개선시켰고, 앞으로도 저수익 제품 퇴출, 원재료 구매선 다변화, 프리미엄 및 메가브랜드 육성으로 연평균 0.5~0.7%p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을 올릴 전망이다. 지난해와 같은 건과시장의 호황은 없겠지만, 스낵을 대체해 이번 에 가격을 올린 비스킷류 등의 판매가 회복된다면 올해 ASP도 2~3% 올라갈 것이다. 지난해 저가 러시아 경쟁품 유입으로 매출액이 역성장했던 카자흐스탄의 라하트도 최근 20% 이상 외형이 성장하고 있다. 이외 파키스탄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인도는 제 2공장 건립으로 북부지역 판매가 늘고, 중국은 산동성과 광둥성 위주의 판매로 고정비를 줄여 2018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외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5% 정도였으나 올해 1%포인트 가량 개선될 것이다.

#### ■ 원리더 체제의 최대 수혜는 제과업

동사의 국내 사업의 외형은 연간 1.7조원 규모이나 일본의 건과 및 빙과사업의 매출액은 2014년 기준으로 2.8조원대이다. 빼빼로 등 과거 많은 히트 제품 생산에 일본 롯데가 협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 두 지역을 신동주, 신동빈 형제가 분할해 경영해 왔고, 이들이 일면 경쟁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수년간의 협력은 충분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롯데그룹이 원리더체제로 변경되면 한국과 일본의 제과업에서 시너지가 클 것이다. 일본 롯데그룹은 사업의 대부분이 건과와 빙과업이므로 원리더체제로 인한 수혜는 한국 롯데제과가 가장 클 것이 자명하다.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건과 및 빙과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아시아 2위가 된다. 협력이 강화되면 1) 라인업이 보강되고 2) 일본 롯데의 유보자금을 활용해 이자비용이 절감되며, 3) 지역적으로 분할해 경영해 오던 해외에서도 업에서 확장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3)은 예를 들면 일본 롯데가 먼저 진출해 경영을 주도하던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필리핀 등지에도 한국 롯데제과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제과업이 안정성이 우수하고, 일본 롯데의 외형 규모가 더 크며, 수익성도 소폭 높기 때문에(2014년 영업이익률 7~8% 추정) 통합 경영이 실현되면 동사의 기업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1,976	92	51	36,044	(44.6)	179	53.0	17.5	1.0	1.8	0.2
2014A	2,225	115	(3)	(2,026)	NM	206	NM	15.0	1.0	(0.1)	0.3
2015F	2,258	144	75	53,454	NM	242	42.6	15.7	1.3	3.0	0.5
2016F	2,369	172	111	78,580	47.0	272	30.9	14.8	1.3	4.3	0.5
2017F	2,492	195	133	94,556	20.3	297	25.6	13.6	1.2	4.9	0.5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3월 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3/2(수)	3/3(목)	3/4(금)	3/7(월)	3/8(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47.42	1,958.17	1,955.63	1,957.87	1,946.12	
	등락폭	30.76	10.75	-2.54	2.24	-11.75	
	등락종목	상승(상한)	572(0)	517(0)	484(1)	462(1)	391(0)
		하락(하한)	243(0)	292(0)	320(0)	358(0)	410(1)
	ADR	115.13	115.07	115.37	119.49	123.35	
	이격도	10 일	101.67	101.83	101.45	101.35	100.59
		20 일	102.31	102.75	102.53	102.51	101.75
	투자심리	60	7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23	421	316	345	354
	거래대금	(십억 원)	5,178	4,982	4,606	4,688	4,844
코스닥	코스닥지수	662.25	669.01	673.84	672.21	674.32	
	등락폭	10.63	6.76	4.83	-1.63	2.11	
	등락종목	상승(상한)	572(1)	517(3)	484(4)	462(1)	489(1)
		하락(하한)	243(1)	292(0)	320(0)	358(0)	563(0)
	ADR	105.16	104.93	108.10	110.17	113.71	
	이격도	10 일	102.64	102.96	103.14	102.46	102.40
		20 일	101.39	102.53	103.36	103.21	103.59
	투자심리	80	90	90	80	80	
	거래량	(백만 주)	518	543	532	546	546
	거래대금	(십억 원)	3,046	3,511	3,109	3,298	3,104

##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524.4	1,249.9	1,005.1	234.7	178.0	234.3	64.2	11.7	282.248	90.2
	매도	2,418.5	1,346.9	1,065.4	196.3	191.5	255.2	98.6	14.3	309.5	38.8
	순매수	105.9	-97.0	-60.3	38.4	-13.5	-20.9	-34.4	-2.6	-27.2	51.4
	3월 누계	-719.0	1,135.8	-642.2	85.8	114.3	-658.7	-148.8	-2.3	-32.4	225.4
	16년 누계	-1,417.3	-1,636.3	3,605.6	917.2	2,917.0	494.6	-436.0	-168.4	-118.8	-551.9
코스닥	매수	2,786.9	183.8	138.2	55.1	16.6	30.0	9.2	2.1	25.3	20.5
	매도	2,732.8	231.9	137.9	38.2	21.7	40.2	10.9	1.2	25.6	26.8
	순매수	54.1	-48.1	0.3	16.9	-5.1	-10.3	-1.6	0.8	-0.4	-6.3
	3월 누계	178.1	38.3	-134.2	34.0	-12.3	-106.4	-0.3	-0.5	-48.6	-82.1
	16년 누계	1,660.3	-110.7	-1,253.1	-198.0	-45.9	-355.2	-153.1	-65.3	-435.6	-296.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7,879	전기,전자	-38,672	유통업	9,835	서비스업	-19,667
서비스업	7,676	제조업	-7,464	건설업	9,649	전기,전자	-18,805
화학	6,071	증권	-2,188	전기가스업	8,632	의약품	-10,939
SK이노베이션	6,311	SK하이닉스	-21,390	한국전력	7,622	삼성전자	-13,245
한국전력	5,272	삼성전자	-21,377	현대건설	5,552	한미사이언스	-11,583
한라홀딩스	5,045	삼성물산	-4,019	신세계	5,271	SK하이닉스	-10,531
SK	4,677	KODEX 200	-3,675	두산중공업	4,080	한미약품	-7,267
POSCO	4,606	현대모비스	-3,460	LG디스플레이	3,979	LG생활건강	-7,25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2,552	증권	-2,947	보험	19,214	서비스업	-13,326
제조업	1,164	철강및금속	-2,312	화학	3,939	전기,전자	-7,652
화학	231	운수장비	-312	증권	3,571	운수장비	-6,916
한국전력	2,583	메리츠종금증권	-2,893	삼성생명	17,073	TIGER 200	-11,524
KODEX 레버리지	1,838	POSCO	-2,848	ARIRANG 200	4,951	SK하이닉스	-7,345
롯데칠성	834	대상	-716	KStar 200	4,072	아모레G	-4,994
TIGER 헬스케어	818	SK하이닉스	-658	한국전력	2,597	KINDEX 200	-4,399
KODEX 인버스	786	현대차	-443	삼성화재	2,281	호텔신라	-3,461

##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31,938	전기,전자	-47,614	운수장비	35,923	전기,전자	-76,118
철강및금속	17,868	서비스업	-25,736	유통업	20,184	전기가스업	-50,586
보험	16,373	제조업	-24,521	철강및금속	12,304	화학	-46,302
한국전력	31,714	SK하이닉스	-54,524	KODEX 200	19,950	삼성전자	-66,426
삼성생명	16,570	KODEX 200	-20,915	현대중공업	16,223	한국전력	-51,798
LG디스플레이	12,552	삼성물산	-16,888	POSCO	11,512	아모레퍼시픽	-29,254
KODEX 인버스	11,748	한미사이언스	-14,054	현대차	9,379	SK이노베이션	-12,555
KODEX 레버리지	9,844	한미약품	-11,011	한미사이언스	5,565	삼성전자우	-12,496
SK이노베이션	9,390	아모레G	-10,229	현대상선	5,220	LG생활건강	-10,040
신세계	9,147	CJ	-8,035	신한지주	5,032	SK하이닉스	-8,457
POSCO	7,726	롯데제과	-5,496	삼성중공업	4,956	KB금융	-6,064
오리온	6,150	SK텔레콤	-5,358	TIGER 200	4,811	금호석유	-5,733
롯데케미칼	5,630	메리츠종금증권	-4,780	두산중공업	4,546	하나금융지주	-5,205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송장비,부품	1,295	IT부품 -3,714
금속	912	계약 -2,216
인터넷	550	방송서비스 -1,771
성우하이텍	1,141	아트라스BX -3,736
성광벤드	896	컴투스 -3,063
동국제약	845	인트론바이오 -2,634
웹젠	843	디오 -1,220
오스템임플란트	640	GS홈쇼핑 -1,04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3,719	IT부품 -2,462
반도체	1,746	인터넷 -977
금융	1,665	계약 -902
CJ E&M	3,595	아트라스BX -2,491
한국토지신탁	1,665	메디투스 -1,725
이엔에프테크놀로지	858	카카오 -977
씨젠	696	디에이치피코리아 -621
AP시스템	686	에스엠 -60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421	반도체 -266
IT부품	258	소프트웨어 -93
화학	236	통신장비 -57
카카오	421	원익IPS -175
아트라스BX	291	코나아이 -105
네오팜	230	와이솔 -95
태광	185	에이스테크 -55
티씨케이	71	유진테크 -49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전문기술	2,244	계약 -3,094
방송서비스	2,179	의료,정밀기기 -2,495
반도체	1,326	소프트웨어 -651
CJ E&M	2,580	인바디 -984
CJ오쇼핑	1,567	메디투스 -766
테스	685	오스템임플란트 -678
GS홈쇼핑	612	바텍 -652
바이로메드	579	휴온스 -537

##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17,108	계약 -6,586
전문기술	5,193	의료,정밀기기 -2,927
반도체	2,944	디지털컨텐츠 -2,834
아트라스BX	15,951	인트론바이오 -4,582
CJ E&M	5,269	컴투스 -3,958
AP시스템	1,985	카카오 -2,572
웹젠	1,331	메디투스 -2,222
CJ오쇼핑	1,141	에스에프에이 -1,383
테스	1,106	인바디 -1,344
성우하이텍	1,013	파라다이스 -1,000
한국토지신탁	895	원스 -960
이엔에프테크놀로지	886	디오 -849
한양이엔지	841	로엔 -812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8,712	IT부품 -22,973
반도체	2,718	계약 -17,359
통신서비스	2,107	의료,정밀기기 -5,621
카카오	8,702	아트라스BX -21,756
메디투스	5,363	셀트리온 -20,180
에스에프에이	2,148	컴투스 -2,998
이오테크닉스	1,645	인트론바이오 -2,446
GS홈쇼핑	1,230	바이로메드 -2,365
성광벤드	1,223	차바이오텍 -1,942
안랩	1,191	인바디 -1,833
게임빌	1,178	뷰웍스 -1,688
한국전자금융	1,116	파라다이스 -1,525
셀바이오텍	1,087	오스템임플란트 -1,39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대한제분	18 일	KPX케미칼	31 일
삼성증권	16 일	풍산	21 일
KODEX 레버리지	16 일	화신	18 일
TIGER 레버리지	16 일	경방	16 일
삼성생명	14 일	현대제철	16 일
KOSEF 고배당	12 일	POSCO	16 일
OCI	10 일	카프로	16 일
동양	8 일	STX	1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실리콘웍스	6 일	동국산업	22 일
동서	5 일	KTH	10 일
하이록코리아	4 일	신화인터텍	9 일
태광	4 일	에이블씨엔씨	9 일
솔브레인	4 일	모두투어	9 일
주성엔지니어링	4 일	솔브레인	8 일
DMS	4 일	덕산하이메탈	8 일
동국산업	3 일	포스코엠텍	7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10,505	POSCO	151,144
삼성생명	71,565	SK하이닉스	108,115
하나금융지주	41,408	KODEX 200	102,400
SK이노베이션	40,582	현대차	93,871
KB금융	39,444	현대중공업	68,540
현대중공업	27,195	한미약품	59,482
두산중공업	22,864	LG전자	46,056
신한지주	21,898	호텔신라	39,534

KOSDAQ			
기	관	외	국 인
아트라스BX	23,322	카카오	37,346
셀트리온	6,789	에스에프에이	15,688
이엔에프테크놀로지	5,117	AP시스템	10,929
실리콘웍스	4,647	이오테크닉스	10,544
코미팜	4,246	원익IPS	8,149
한국토지신탁	3,560	인트론바이오	7,944
에스엠	3,064	GS홈쇼핑	5,070
게임빌	2,900	디오	4,796

##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기	관	외 국 인
철강및금속	17,868	12,304	30,172
유통업	7,340	20,184	27,523
보험	16,373	4,886	21,259
POSCO	7,726	11,512	19,238
삼성생명	16,570	1,129	17,699
LG디스플레이	12,552	3,391	15,943
신세계	9,147	3,614	12,761
현대차	2,536	9,379	11,914
호텔신라	2,502	4,052	6,554
CJ제일제당	2,723	3,486	6,209
현대건설	3,761	1,566	5,327
현대위아	2,924	2,222	5,146
롯데쇼핑	1,420	3,709	5,129

종 목	KOSDAQ		
	기	관	외 국 인
전문기술	5,193	1,322	6,515
반도체	2,944	2,718	5,662
방송서비스	389	1,016	1,404
CJ E&M	5,269	801	6,070
AP시스템	1,985	118	2,102
코오롱생명과학	694	678	1,372
SK 머티리얼즈	465	578	1,042
세종텔레콤	0	1,032	1,032
한양이엔지	841	27	868
오스코텍	626	146	772
솔브레인	258	513	771
원익IPS	449	295	744
한글과컴퓨터	464	213	67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에스원	16 일	도레이케미칼	18 일
TIGER 인버스	16 일	농심	11 일
KOSEF 10년국고채	15 일	하나금융지주	11 일
삼성전자	12 일	금호석유	9 일
SK텔레콤	12 일	디와이	8 일
KODEX 200	12 일	LG생명과학	8 일
대상	11 일	부광약품	7 일
현대글로비스	11 일	빙그레	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GS홈쇼핑	14 일	실리콘웍스	16 일
차바이오텍	11 일	오스템임플란트	10 일
KH바텍	7 일	포스코 ICT	5 일
유진기업	6 일	루멘스	5 일
에스에프에이	6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5 일
크레듀	6 일	휴맥스	5 일
에스엔유	6 일	서울반도체	4 일
툽텍	5 일	하이룩코리아	3 일

##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34,984	한국전력	-55,377
SK하이닉스	-82,501	삼성생명	-37,698
KODEX 200	-63,551	삼성전자우	-37,547
현대차	-61,952	하나금융지주	-37,404
LG화학	-57,765	오리온	-34,174
LG전자	-53,724	유한양행	-18,218
LG생활건강	-44,745	SK이노베이션	-16,765
POSCO	-38,374	KB금융	-14,839

KOSDAQ			
기	관	외	국 인
원익IPS	-30,442	셀트리온	-62,937
에스에프에이	-21,518	아트라스BX	-23,469
인트론바이오	-16,348	오스템임플란트	-9,938
CJ E&M	-9,018	인바디	-8,803
GS홈쇼핑	-5,956	삼천리자전거	-4,644
인바디	-4,602	바텍	-4,255
로엔	-3,840	루멘스	-4,007
이오테크닉스	-3,534	아모텍	-2,813

##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47,614	-76,118 -123,732
서비스업		-25,736	-3,829 -29,566
음식료품		-9,121	-15,223 -24,345
삼성전자		-3,467	-66,426 -69,893
SK하이닉스		-54,524	-8,457 -62,981
삼성물산		-16,888	-131 -17,019
LG생활건강		-4,763	-10,040 -14,804
삼성전자우		-1,296	-12,496 -13,792
CJ		-8,035	-2,618 -10,652
롯데제과		-5,496	-2,082 -7,578
SK텔레콤		-5,358	-1,891 -7,249
오뚜기		-3,912	-2,396 -6,308
한라홀딩스		-1,675	-4,177 -5,852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6,586	-17,359 -23,944
의료,정밀기기		-2,927	-5,621 -8,548
디지털컨텐츠		-2,834	-4,576 -7,410
셀트리온		-686	-20,180 -20,866
인트론바이오		-4,582	-2,446 -7,029
컴투스		-3,958	-2,998 -6,956
인바디		-1,344	-1,833 -3,176
바이오메드		-581	-2,365 -2,947
파라다이스		-1,000	-1,525 -2,525
차바이오텍		-28	-1,942 -1,971
휴온스		-605	-1,115 -1,720
에스엠		-803	-908 -1,711
오스템임플란트		-262	-1,396 -1,65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1	13,545	
한국항공우주	112	8,360	
아모레퍼시픽	21	7,883	
KB금융	233	7,539	
엔씨소프트	31	7,301	
삼성화재	22	6,768	
현대중공업	55	6,535	
한국전력	99	5,57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785	82,248	
카카오	45	4,789	
메디투스	7	3,462	
바이로메드	18	2,947	
인트론바이오	21	1,802	
코미팜	30	1,329	
원익IPS	84	1,023	
씨젠	25	865	

##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675	3,271,207
현대중공업	12,887	1,527,059
호텔신라	18,273	1,315,668
한미약품	1,794	1,266,503
현대차	7,130	1,044,536
아모레퍼시픽	2,732	1,014,866
롯데케미칼	2,836	896,320
POSCO	3,653	794,44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7,176	2,801,896	
카카오	10,062	1,065,535	
CJ E&M	963	551,342	
메디투스	821	377,921	
바이로메드	1,623	262,356	
위메이드	1,201	246,144	
컴투스	1,679	202,708	
코미팜	3,757	160,236	

##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금융업	6,620	기계	-9,463
서비스업	2,153	전기가스업	-1,626
보험	1,298	화학	-1,494
한진해운	3,424	두산인프라코어	-10,716
대우조선해양	3,042	팬오션	-2,523
KB금융	2,596	한화케미칼	-2,113
삼성엔지니어링	1,809	한국전력	-1,621
한온시스템	1,750	LG디스플레이	-1,165
KODEX 200	1,670	미래에셋증권	-974
한화생명	1,658	삼성중공업	-911
SK하이닉스	1,520	두산중공업	-794
신한지주	1,473	현대상선	-774
BNK금융지주	1,177	신일산업	-75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제약	4,292	오락,문화	-536
반도체	1,417	기계,장비	-529
소프트웨어	658	전문기술	-475
셀루메드	3,285	파라다이스	-513
행남자기	549	에스엔유	-474
카카오	516	에스코넥	-430
셀트리온	474	서울반도체	-362
심텍홀딩스	416	인터파크홀딩스	-289
파인테크닉스	347	CJ E&M	-280
원익IPS	342	솔브레인이엔지	-216
STS반도체	297	코다코	-160
성광벤드	295	파트론	-157
서한	261	AP시스템	-154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3/2(수)	3/3(목)	3/4(금)	3/7(월)	3/8(화)
외국인	-1,636.3	1,135.8	1,135.8	376.0	496.0	159.8	201.1	-97.0
기관계	3,605.6	-642.2	-642.2	-15.4	-235.5	-132.1	-198.8	-60.3
(투신)	494.6	-658.7	-658.7	-184.6	-241.2	-106.4	-105.5	-20.9
(연기금)	121.4	-69.8	-69.8	25.8	-7.6	4.5	-42.3	-50.3
(은행)	-168.4	-2.3	-2.3	2.8	-3.3	1.6	-0.8	-2.6
(보험)	2,917.0	114.3	114.3	57.2	22.8	20.4	27.4	-13.5
개인	-1,417.3	-719.0	-719.0	-411.0	-314.8	-45.5	-53.6	105.9
기타	-551.9	225.4	225.4	50.4	54.3	17.9	51.3	51.4

주: KOSDAQ 제외

###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2/29(월)	3/2(수)	3/3(목)	3/4(금)	3/7(월)
KOSPI	1,997.1	2,011.3	1,915.6	1,916.7	1,947.4	1,958.2	1,955.6	1,957.9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20,661.7	21,533.9	21,104.7	21,293.3	21,529.4
(증감액)	334.1	-3,802.5	1,630.7	-704.5	872.2	-429.2	188.6	236.1
(회전율)	26.7	29.9	34.0	36.1	38.2	40.2	36.2	37.1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586.6	830.1	-471.8	-284.9	-83.7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2,922.5	2,931.5	2,923.3	2,931.2	2,930.0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441.8	3,442.5	3,435.9	3,451.0	3,485.0
미수금	1,241.0	929.0	1,176.0	120.8	111.2	109.3	124.9	131.3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3/2(수)	3/3(목)	3/4(금)
전체 주식형	83,294	1,981	-311	87	-181	-217
(ex. ETF)		572	-536	-33	-245	-259
국내 주식형	65,130	1,858	-403	76	-209	-270
(ex. ETF)		451	-629	-44	-273	-312
해외 주식형	18,164	123	92	11	29	53
(ex. ETF)		121	92	11	29	53
주식 혼합형	8,129	-51	-23	-1	-4	-18
채권 혼합형	30,766	151	31	9	28	-6
채권형	89,780	4,208	231	38	199	-6
MMF	119,479	25,972	2,883	-667	1,468	2,08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3/2(수)	3/3(목)	3/4(금)	3/7(월)	3/8(화)
한 국	-1,319	937	937	306	410	133	168	-79
대 만	1,040	1,304	1,203	232	440	204	182	146
인 도	-2,012	860	417	252	165	-	-	-
인도네시아	326	189	172	36	74	24	38	-
태국	195	401	405	101	146	131	27	-
남아공	-655	557	546	364	-26	153	55	-
필리핀	-80	48	37	22	18	-8	6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5년말	3/2(수)	3/3(목)	3/4(금)	3/7(월)	3/8(화)
회사채 (AA-)	2.11	1.95	1.99	2.00	1.98	1.97
회사채 (BBB-)	8.06	7.91	7.95	7.96	7.94	7.93
국고채 (3년)	1.66	1.47	1.50	1.52	1.50	1.48
국고채 (5년)	1.81	1.58	1.62	1.63	1.62	1.60
국고채 (10년)	2.08	1.83	1.87	1.88	1.87	1.84
미 국채 (10년)	2.27	1.84	1.83	1.87	1.91	-
일 국채 (10년)	0.27	0.07	0.01	0.04	0.05	-
원/달러	1,172.50	1,227.50	1,214.60	1,203.40	1,201.40	2,206.70
원/100엔	972.63	1,076.16	1,065.63	1,059.80	1,058.13	1,062.79
엔/달러	120.55	114.06	114.00	113.55	113.54	113.54
달러/유로	1.09	1.08	1.09	1.09	1.10	1.10
DDR3 1Gb (1333MHz)	1.00	0.98	0.97	0.95	0.94	-
DDR3 2Gb (1333MHz)	1.13	1.01	1.01	1.00	1.00	-
NAND Flash 16Gb (MLC)	1.46	1.38	1.36	1.36	1.36	-
CRB 지수	176.81	165.20	165.62	169.15	172.32	-
LME 지수	2,217.9	2,287.7	2,310.6	2,369.4	2,363.5	-
BDI	478	335	342	349	354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34.66	34.57	35.92	37.90	-
금 (달러/온스)	1,060.00	1,239.20	1,250.25	1,277.50	1,267.9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9	3/1	2	3	4
	中> 2월 차이신 제조업 PMI (48.0, 48.4, 48.4) 2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49.0, 49.4, 49.4) 美> 1월 ISM 제조업지수 (49.5, 48.5, 48.2) 韓> 2월 수출 YoY (-12.2%, -16.6%, -18.8%) 유럽> 2월 마킷 제조업 PMI (51.2, 51.0, 51.0)	美> 슈퍼 화요일 日> 2월 본원통화 YoY (29.0%, n/a, 28.9%) 韓> 1월 광공업생산 YoY (-1.9%, -0.6%, -2.2%)	중국> 양회(~13일) 韓> 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3%, 0.9%, 0.8%) 美> Williams 연준이사 연설 베이징북 발간 1월 제조업수주 (1.6%, 2.1%, -2.9%) 1월 내구재주문 (4.7%, n/a, 4.9%) 유럽> 1월 소매판매 MoM (0.4%, 0.1%, 0.6%)	美> 2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천명) (242, 195, 172) 2월 실업률 (4.9%, 4.9%, 4.9%)
7	8	9	10	11
中> 2월 외환보유고(십억 위안) (n/a, 3,190.0, 3,230.9)  독일> 1월 공장수주 MoM (-0.1%, -0.3%, -0.2%)	美> Fischer 연준 부의장 연설 Brainard 연준 이사 연설  中> 2월 수출 YoY (-25.4%, -14.5%, -11.2%) 2월 수입 YoY (-13.8%, -12.0%, -18.8%)  日> 4분기 GDP QoQ (-0.3%, -0.4%, -0.4%)  유럽> 4분기 GDP QoQ (n/a, 0.3%, 0.3%)  독일> 1월 산업생산 MoM (3.3%, 0.5%, -0.3%)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n/a, -0.4%, -0.3%)  韓> 금통위 금리 결정 (n/a, 1.50%, 1.50%)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中> 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1.8%, 1.8%) 2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n/a, 13.7%, 14.0%) 2월 신규대출 (~15일,십억 위안) (n/a, 1,200.0, 2,510.0)	독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0%, 0.0%)
14	15	16	17	18
유럽> 1월 산업생산 MoM	日> BOJ 통화정책회의 1월 광공업생산 MoM	美> 2월 주택착공건수 2월 광공업생산 MoM 2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韓> 2월 실업률  日> 2월 기계수주 MoM	美> FOMC 통화정책회의  유럽> 2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日> 2월 수출 YoY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